

# “호두제품경연대회 매년 개최할 예정”

## 홍보 활동 차 방한한

### 테니스 벨린트 캘리포니아 호두협회 대표이사



미국 캘리포니아주 6,000여 호두 생산자들의 협동조직인 캘리포니아 호두협회의 테니스 벨린트 대표이사가 호두 수확기를 맞아 지난 달 방한했다.

이를 기념해 지난달 5일 업계 관계자 및 역대 호두제품경연대회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호두협회 주최로 하얏트 호

텔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벨린트 대표는 “그동안 캘리포니아 호두 보급에 힘써주신 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”며 “96 ~ 97 호두 시장을 앞두고 시장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차 방한하게 됐다”고 밝혔다.

지난 94년 호두시장 개방에 맞춰 한국에 진출한 캘리포니아 호두협회는 지난해부터 호두제품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식품 관련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그동안 캘리포니아산 호두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.

#### 호두제품경연대회 결과 만족, 매년 개최할 방침

올해로 2회째 치른 호두제품경연대회에 대해 벨린트 대표는 “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제품 수준이 높아 놀랐다”고 말하며 대회의 지속 여부에 대해 “앞

으로도 매년 이 대회를 개최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 그는 또 “호두제품경연대회가 한국 제과기술 발전에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”이라고 말했다.

캘리포니아 호두협회가 지난 95 ~ 96 시즌에 한국에 수출한 호두(껍질을 벗긴 것)량은 378톤으로 이는 같은 기간 캘리포니

아 전체 호두 생산량 1만 7,280톤의 2%에 달한다. 아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. 그러나 벨린트 대표는 “한국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않겠지만 완만하게 꾸준히 성장할 것”이라고 낙관했다.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은 큰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.

한국의 ‘신토불이’ 바람과 값싼 중국산 호두의 대량 유입을 의식한 듯 그는 “다른 나라 수입산보다 값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품질과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뛰어나다”고 강조했다.

벨린트 대표이사는 “한국시장의 올 한 해가 성공적이었다”고 평가하며 이어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캘리포니아산 호두 수요를 점차적으로 확대시킬 방침”이라고 덧붙였다. 